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워진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 ◇ (시장진단)-MSCI 반기 리뷰 결과 韓 비중 확대..패시브자금 유입 전망
- ◇ (초점)-공모 발행 말렸어도 예측불허 크로스 시장..달러 유동성 · 글로벌 금리 관건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19 억제에 대해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런던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카를로스 바리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12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79.6	0.5%	-7.9%	+6.5%	유로	1.1450	-1.0%	-6.3%	+8.9%
100엔 대비	1,035.5	0.6%	1.5%	+1.1%	엔	113.85	-0.4%	-9.3%	+5.2%
유로 대비	1,350.2	1.2%	-1.8%	-2.3%	위안	6.3900	0.1%	2.2%	+6.7%
위안 대비	184.81	-0.1%	-10.0%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6,100.31	-0.6%	17.9%	+7.2%
코스피	2,968.80	0.0%	3.3%	+30.8%	나스닥	15,860.96	-0.7%	23.1%	+43.6%
코스닥	1,009.07	0.8%	4.2%	+44.6%	S&P500	4,682.85	-0.3%	24.7%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54.12	1.3%	-1.2%	+19.8%
국고채 3Y	1.968%	2.4bp	99.2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166%	0.0bp	83.1bp	-14.5bp	미국채 2Y	0.518%	11.3bp	39.7bp	-144.0bp
국고채 10Y	2.344%	-0.6bp	63.1bp	+3.0bp	미국채 10Y	1.570%	11.5bp	65.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80.79	-0.6%	66.5%	-20.5%	한국 5Y	18.9bp	-0.1bp	-3.1bp	+0.1bp
금(현물)	1,864.04	2.6%	-1.8%	+25.0%	일본 5Y	17.5bp	-0.1bp	2.5bp	-4.5bp
TR상품지수	3,299.93	2.1%	23.1%	+7.8%	중국 5Y	52.9bp	3.1bp	24.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월 15일(월)>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3:30)
- 기재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 사업 1억불 지원(14:00)
- 기재부, 부총리 국가우주위원회(15:30)

<16일(화)>

-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1월호)(10:00)
-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0:00)
- 금감원,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 한은,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12:00)

<17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12:00)
-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15:00)

<18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기재부·한은,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19일(금)>

- 금융위,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참석 결과(배포시)
- 한은, 10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월 15일(월)>

- 일본 3분기 GDP (08:50)
- 중국 10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 판매 (11:00)
- 일본 9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11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2:30)

<16일(화)>

- RBA, 11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유로존 3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10월 수출입물가·소매판매 (22:30)
- 미국 10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9월 기업재고·소매재고 수정치 (자정)
- 미국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7일(수)>

- 일본 9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10월 수출입지표 (08:50)
- ECB, 반기 통화 안정 보고서 발행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1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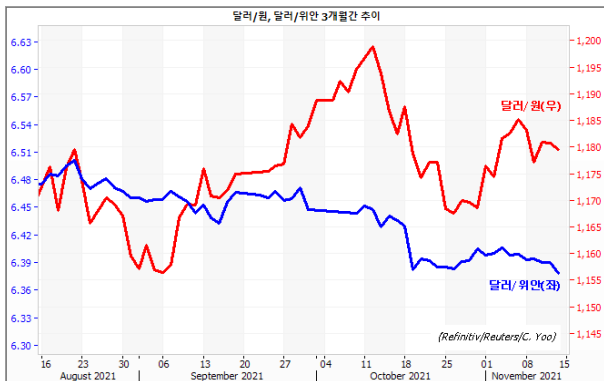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30)

<19일(금)>

- 미국 1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01:00)
- 일본 10월 CPI (08:30)
- 유로존 9월 경상수지 (18: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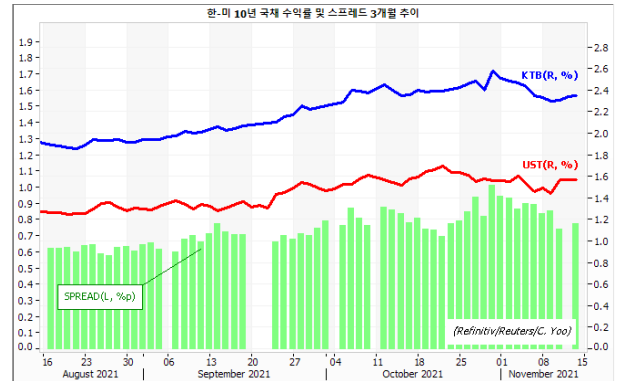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최근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도 수급 따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0 원이다.
- 금융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를 소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조기 긴축 전환 우려는 일단 누그러졌고, 국내외 금융시장은 그날그날 개별 재료에 의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 지난 주말 달러지수가 16 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랐지만, 이전처럼 강달러 모멘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다.
- 원화는 글로벌 달러 흐름을 대체로 따르지만, 그때그때 수급이나 증시 흐름에 반응하며 달러와 차별화된 반응도 보이기도 한다.
- 恒大(恒大·에버그란데)그룹 사태가 야기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잦아들면서 중국발 리스크의 시장 영향력은 이전보다 떨어졌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등 핵심 지표 결과를 주목하겠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역대 수급에 따라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는 17일에는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로, 이와 관련한 수급이 이번 주 환율 변동성 재료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될 배당 몫은 약 1.34 조원으로 추산된다.
- 다만, 연말로 갈수록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환율 반등 때마다 달러를 풀어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 그 밖의 국내 경제지표로는 10월 거주자 외화예금과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3분기 가계동향 조사,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리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단기간 금리 반락 국면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둔 포지션 구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션 부담이 채권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수급에 승통이 트이면서 여력이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포지션을 채워나가는 모습이다.
- 물론 외국인이 관건이다. 외국인이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년 국채 선물을 25 만계약 이상 매도하며 국내 시장 참가자들을 구석으로 몰았다. 그랬던 외국인도 이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 3년물 금리 기준으로 1.95% 정도면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반영하고도 버퍼를 남겨둔 수준이다.
- 통화당국이 현재의 '무질서한 정상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매파색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연말을 앞두고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수준이다.
- 하지만 올해 5월 이후 이렇게 설레발을 치던 시장이 항상 금통위 회의 때 통화당국과의 인식차를 확인한 것은 큰 부담이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여기서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성과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해도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매도 장은 쉽지 않다. 밀릴 때마다 매수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시간 16일 오전, 미국 동부시간 15일 저녁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칼럼)-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워진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11월 11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지난 10년간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을 때 자산 가격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다는 그들의 평판에 상처를 내고 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6.2% 급등해 30여년 만의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부담을 더 하는데, 단순히 그가 재신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올해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저평가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반드시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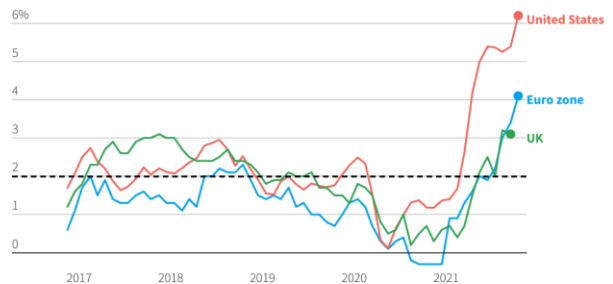
중앙은행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 애를 쓰고 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은 일각에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월 단위로 측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압력이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발언은 월가나 실물경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언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영란은행의 깜짝 금리 동결 때와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또 중앙은행들의 자신감에 대한 회의론도 부추긴다. 머니마켓은 유럽중앙은행(RCB)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말과는 반대로 2022년 말 이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연설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가계는 훨씬 더 불안하다. 뉴욕 연방은행이 8일 발표한 미국 소비자 서베이에서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단기 모두 역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준이 물가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히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시사한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연설장에 자신을 비롯한 연준 스태프들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1달러를 넣어야 하는 유리단지를 들고 등장했다. 이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더 잘 설명해야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파월 의장의 경우 이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고용률 상승이 갖는 이점을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피해와 견주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간 명확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그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Inflation overshoots



Note: U.S. CPI, UK CPI, Euro zone HICP
Source: Refinitiv Datastream
Vincent Flassieur | Breakingview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진단)-MSCI 반기 리뷰 결과 韓 비중 확대..패시브자금 유입 전망

서울, 11월 12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11월 반기 리뷰 결과 신흥국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수 조정 당일 패시브 자금 순유입이 예상된다.

국내 증권사들에 따르면 MSCI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리뷰 결과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은 11.95%에서 12.07%로 0.12%p 증가했다. 다수의

국내 종목이 신규 편입되고, 파키스탄 및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가 신흥국지수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종목별로는 F&F, 일진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엘앤에프,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6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고, 대우조선해양, 힐라홀딩스, 신세계 등 3개 종목은 편출됐다.

이 가운데 에스디바이오센서 주가는 12% 이상 급등 중이다.

신흥국지수 추종자금 규모와 환율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반기 리뷰 영향으로 7천억원 상당의 패시브 자금 순유입이 예상된다. 국내 여러 증권사들은 지수 리밸런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추종 자금 규모를 약 0.5조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리밸런싱 반영 당일 외인 매매 동향이 주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외인 자금 방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함께 확대되기도 한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수 조정일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는 1~2조원대로 급격히 확대됐던 반면, 5월에는 2천억원대로 그 규모가 줄었다. 한편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감소했던 8월 외인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대 물량을 사들였다.

이번 리뷰 결과는 30일 장 마감 후 반영되며, 조정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출입은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로 주로 이뤄진다.

▲ 선진국지수 기대 효과, 자금 유입 확대는 '글썸'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당위성을 언급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Full Story)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신흥국지수보다 크고 변동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

적이지만, 실제 편입 이후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종목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종자금 및 시장 규모는 선진국지수가 훨씬 크지만, 비중을 고려하면 자금 유입 효과는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금 유입보다는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SCI 지수 추종자금 규모는 작년말 기준 총 14.5조달러로, 세계지수 4.2조달러, 선진국지수 3.0조달러, 신흥국지수 1.7조달러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단순 추종자금 규모는 선진국지수가 신흥국지수보다 크지만, 미국 종목 비중이 큰 영향이고 권역 전반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범중화권 교역국가 인식 등 국내 증시의 신흥아시아 특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점)-공모 발행 말았어도 예측불허 크로스 시장.. 달러 유동성 · 글로벌 금리 관련

서울, 11월 1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화 이자율스왑(IRS) 금리의 하향 안정화 움직임 속에 오퍼압력이 두드러졌던 통화스왑(CRS) 시장에 분위기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은 외국계은행으로 들어온 일회성 플로우가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글로벌 금리의 추이를 감안할 때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한 순간에 돌변한 크로스 시장 분위기..외은 플로우 '주목'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8분 현재 1년 CRS 금리는 전날보다 0.5bp 상승한 0.945%, 2년 CRS 금리는 0.5bp 하락한 0.965%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5년 CRS 금리는 2.5bp 상승한 1.35%, 10년 CRS 금리는 4bp 오른 1.605%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2년 테너로 상당 규모의 자산스왑 프라이싱이 진행되면서 금리가 높았지만 이후 3년 테너로 대규모 비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오퍼 일변도였던 CRS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 전날부터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단기 달러 IRS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비드가 나오며 전날 원화 CRS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외화채 발행 관련 부채스왑을 받은 곳들이 뒤늦게 헤지에 나섰다는 진단도 나왔다. 일부 은행들이 주금공의 외화채 발행 이후 헤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글로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며 수익률곡선도 플랫되니 안도했는데 막상 다시 금리 급등세가 나타나자 급하게 스프레드 비드에 나섰다는 것이다.

A 외국계은행 스왑딜러는 "그동안 주금공 물량을 받은 곳들이 다 델타 커버하기에 정신이 없었다"며 "장기 테너로는 스프레드 오퍼가 없었는데 거기다 비드 날다가 금리가 오르면 시가평가로 터지니까 선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글로벌 금리가 빠지면서 커브가 플랫되니까 괜찮겠지 싶어 포지션을 유지했는데 어제 글로벌 금리가 확 오르니까 급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3년과 10년 테너로 사모 발행 관련 물량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당장 3년 테너로 프라이싱이 이뤄지면서 이날도 외은 비드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10년 테너 프라이싱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오퍼 수급 우위..달러 유동성·글로벌 금리 변수

문제는 일회성 플로우가 마무리된 후 CRS 금리의 방향이다. 공모 외화채 발행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말까지만 보면 자산스왑 플로우가 다소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연말로 갈수록 수급상으로는 오퍼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에 대비해 그동안 달러를 비축하는데 급급했는데 막상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도 달러 유동성이 마르는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년 FX 스왑포인트가 최근 800 전을 고점으로 이날 기준 650 전까지 밀리긴 했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B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지금 시중은행들은 다 달러가 남아서 난리인 상황"이라며 "그동안 달러 자금을 플러스로 맞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커서 지금은 이걸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셀앤바이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가 대세 상승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데다 외화로 자금을 조달해 원화로 돌리는 데 따른 이득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 초에 부채스왑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당장 연말만 보고 오퍼를 늘리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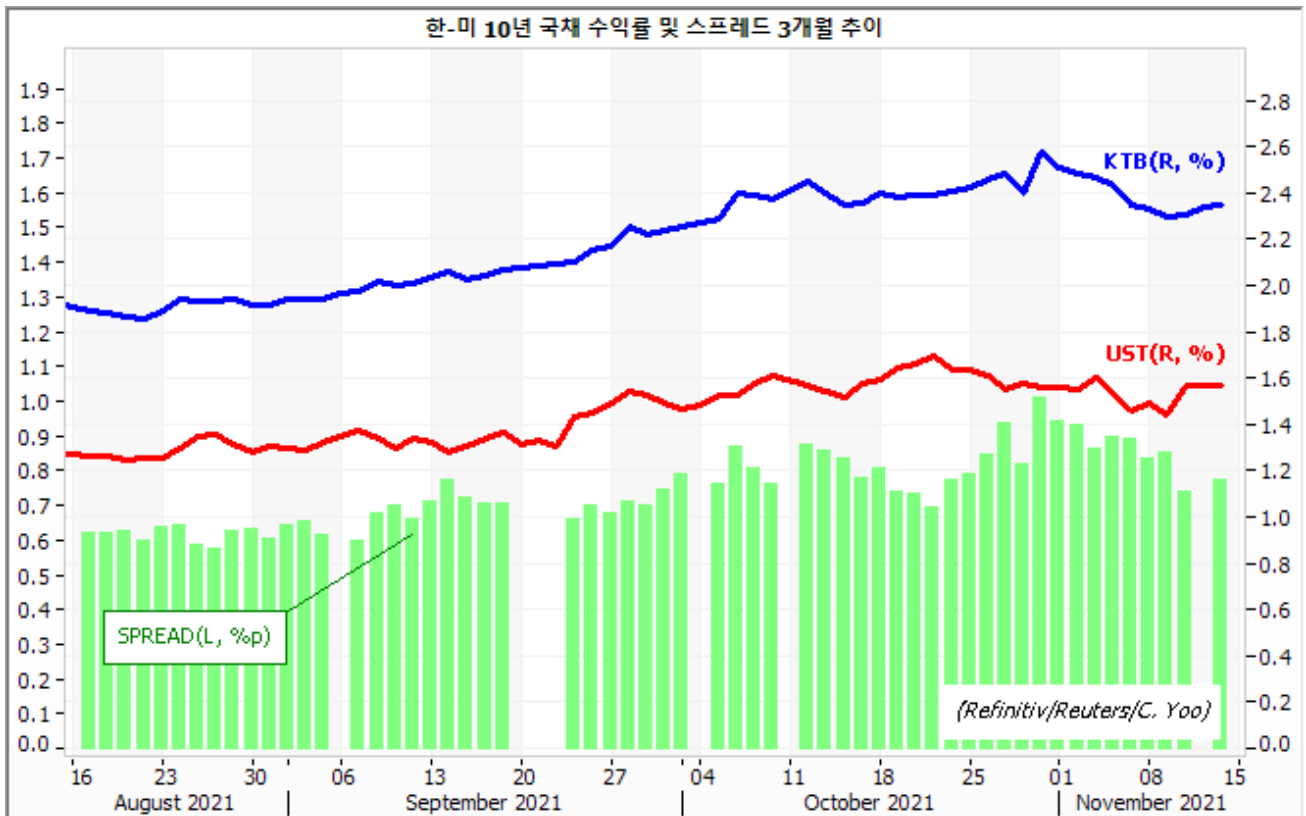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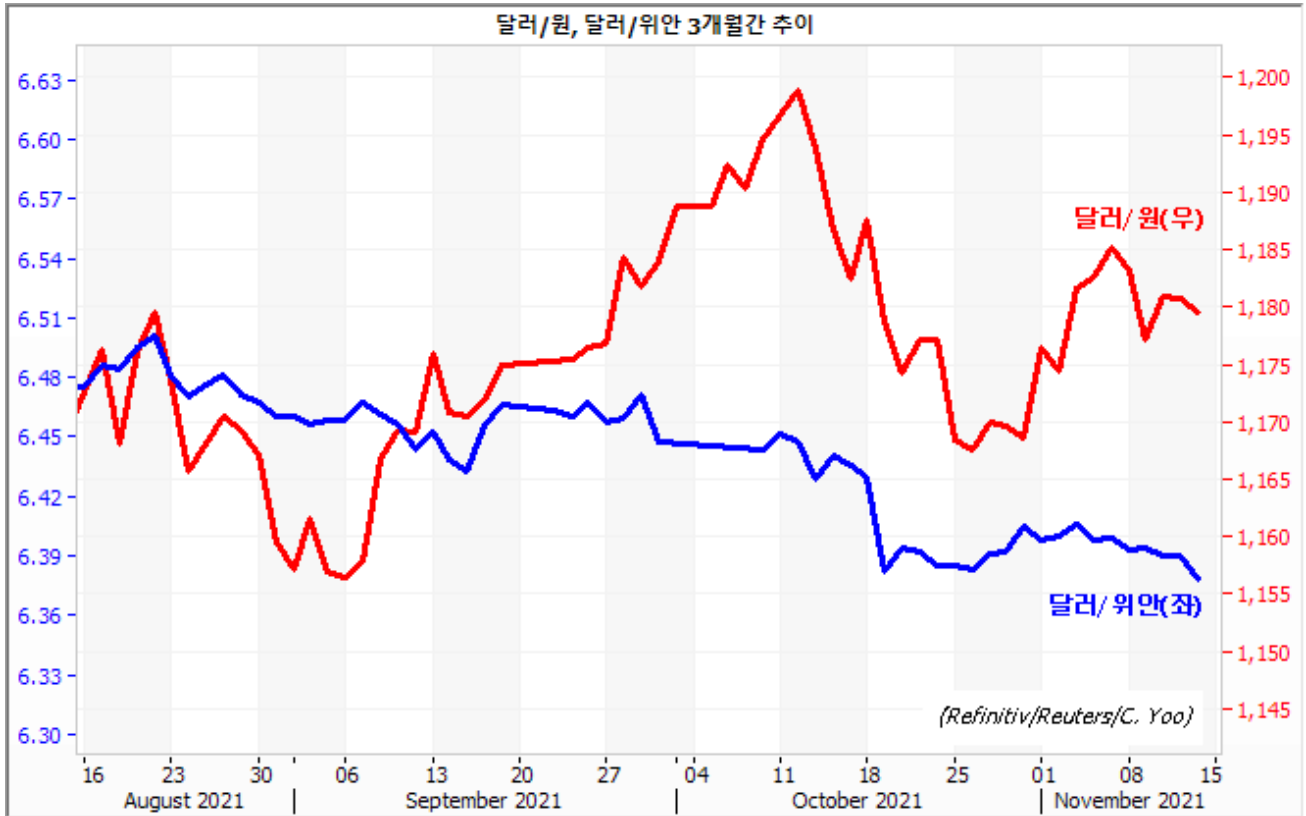
C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크로스 금리와 원화 채권 금리를 감안하면 재정거래나, 대출 관련 스왑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리가 대세 상승하는 시점에 크로스 금리가 자산스왑 때문에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비슷한 2011 년도를 봐도 연말에 크로스 금리가 빠지다가 1월부터 급격히 튀었다"며 "연말까지 수급 효과로 금리가 빠질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오퍼를 잡는 건 12월 말에 귀신같이 탈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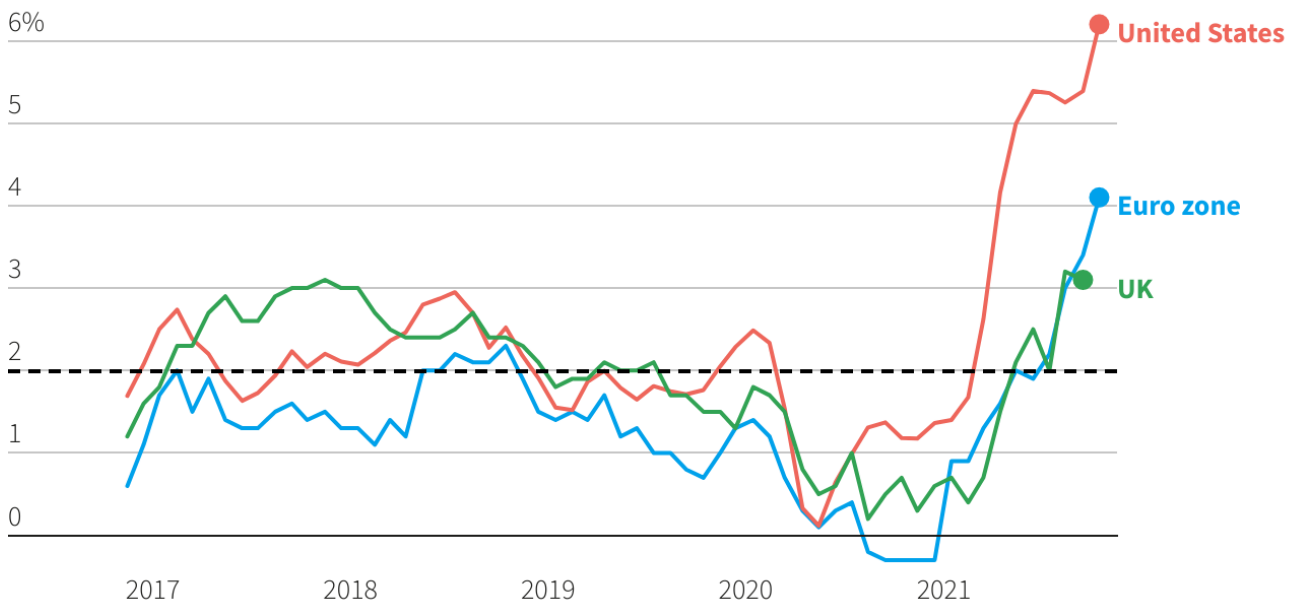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Inflation overshoots



Note: U.S. CPI, UK CPI, Euro zone HICP

Source: Refinitiv Datastream

Vincent Flasseur | [Breakingview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